

教材『えんぴつ作文』について（解題）

菅原智恵美

（大阪市立大学大学院・日之出よみかき教室）

この教材は、大阪市内にある被差別部落の識字学級、日之出よみかき教室（木曜日）で毎週の教室で活用しているものです。

かつて80代の学習者が「家でちょっと書きたいなあと思ってんだけど、3つ書いたら次がわからなくなったから全部書くのをやめたんや。かけたらよかったのに」と教室で話をしてくれました。また、おしゃべりは得意でも文章を書くとなるとちょっとしんどいという学習者もいました。そこで、「思ったことや感じたことを短くても書けるようにしよう」、そんな思いでスタートしました。

この教材のポイントは3つあります。1つ目は、小さな紙で作っているところです。書くスペースが小さいので構えずに作文を書きやすくなっています。文字の読み書きや文章で思いを表現することにまだ慣れていない人にとっては、作文を書くということは気持ちの面で負担があります。逆に文字の読み書きに慣れている人にとっては、小さいスペースの中に、思いをまとめて書くという学習になっています。

2つ目は、仲間づくりにつながっているところです。教室活動時間の半分は、個別の課題に応じて学習を進めています。でも、それだけでは他の人とつながりません。そのため共同学習として「えんぴつ作文」を行い、それぞれのことを知り合う時間にしています。えんぴつ作文を書いた後、輪になって発表（輪読）します。書いて終わりではなく、日々の暮らしの中で、嬉しかったこと、つらかったことを作文にして発表し、それぞれの思いを分かち合います。それが教室の参加者の仲間づくり・連帯につながります。

3つ目は、生活に関心を持ち、綴れるようになることです。書いて表現することが「習慣」になると、日常生活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はじめは「何を書いていいかわからない」、「変化のない暮らしだから書くことがない」と言っていた学習者も、次第に日々の何気ないできごとなど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自分自身の気持ちに向き合い、表現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교재 “연필 작문” 에 대하여(해제)

스가와라 치에미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히노데 읽기쓰기교실)

이 교재는 오사카시내에 있는 피차별부락의 문해학급 히노데 읽기쓰기교실(목요일)에서 매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80 대 학습자가 ‘집에서 좀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 개 쓰면 그 다음이 어떻게 쓰면 되는지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다 쓰는 것을 그만 두었어. 끝까지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교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수다를 떠는 것은 잘해도 글을 쓰는 것은 조금 힘들은 학습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짧아도 쓸 수 있게 하자’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교재의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종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 공간이 작기 때문에 편하게 작문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읽기쓰기나 문장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작문을 쓰는 것은 마음의 측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글자의 읽기쓰기가 익숙한 사람에게는 작은 공간 속에 생각을 정리해서 작성한다는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 만들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실 활동 시간의 절반은 개별 과제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 학습으로 ‘연필 작문’ 을 실시하고, 각각의 생각 등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필 작문을 쓴 후 모두 둘러 앉아 발표(윤독)합니다. 한번 쓰고 끝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기뻐던 일, 괴로웠던 일을

작문 발표하고 각각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실 참가자의 친구
만들기 연대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생활에 관심을 갖고 글을 적게 될 것입니다. 쓰고 표현하는 것이
‘습관’ 이 되면 일상생활에 ‘관심’ 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쓰면 되는지
모르겠다’ , ‘변화 없는 삶이라 쓰는 내용이 없다’ 고 말하고 있었던 학습자도 점차
일상의 아무런 일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번역 : 히고 코우세이 (도요오카 단기대학)
 翻訳 : 肥後耕生 (豊岡短期大学)